

# 2000년대 이후 사극드라마에 나타난 복식 비교 연구

## - 드라마 『장희빈』(2002), 『동이』(2010),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를 중심으로 -

김 가 현·전 재 훈·하 지 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요 약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등장한 퓨전사극의 양상과 그에 따른 사극의상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같은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분석하여 복식을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역사상 희대의 악녀로 평가되는 숙종의 후궁 장옥정은 사극이 방영된 이래 가장 많이 재해석된 인물 중 하나로, 이를 소재로 한 영화는 2편, 사극 드라마는 7편이다.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인 2000년 이후 방영된 장옥정 소재의 사극드라마는 2002년 KBS 특별 기획 드라마 『장희빈』, 2010년 MBC 월화드라마 『동이』, 2013년 SBS 월화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로 총 3편이며, 세 편의 드라마에 표현되는 특징 및 차이점을 밝히기 위하여 영상을 모두 보고 분석하되, 영상을 통해 얻은 사진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장희빈』(2002)은 사극드라마가 퓨전화되던 과도기 단계의 사극드라마로, 퓨전사극보다는 정통사극에 가까웠기에 나머지 두 퓨전 사극드라마 『동이』(2010)와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와 비교하기에 적합하였다. 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10년대의 퓨전사극 전성기의 드라마들과, 정통사극으로 일컬을 수 있는 2000년 초반의 드라마 의상 사이의 차이가 컸다. 또한, 극중 장옥정은 신분 변동이 크고 그에 따른 성격 및 환경 변화가 크기에 『동이』와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는 이를 의상을 통해 표현하려는 경향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또한 퓨전사극의 특성에 부합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퓨전사극이라는 이름하에, 기존에 선보일 수 없었던 사극의상의 다양화 및 현대화를 시도하게 된 점이다. 그것이 고증논란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시대물에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현대적 감성을 불어 넣는 동시에 캐릭터의 성격 및 상황을 복식을 통해 쉽게 전달되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퓨전사극, 사극의상, 장희빈, 동이, 장옥정\_사랑에 살다

## I. 서 론

한국 사회에 사극이 처음 소개된 1960년대 이후 사극드라마는 방송사들의 경쟁을 통해 꾸준히 한국

대중에게 사랑 받으며 발전해왔다. 일반적으로 전쟁 사극, 정책사극 등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사 사극이 남성시청자들을 타깃으로 하며 큰 비중을 차지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 사극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K21플러스 의류패션 전문 창조 인재 양성 사업팀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교신저자: 하지수, jisooa@snu.ac.kr

접수일: 2015년 7월 2일, 수정논문접수일: 2015년 9월 16일,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19일

츠로서의 특성이 부각되면서 대중과의 감성적 교감을 높이기 위해 전통과 퓨전을 넘나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사극은 사적 고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던 스토리 전개 대신에 현대극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소재를 가져와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한 퓨전 사극이 유행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여성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현대극의 로맨스 스토리 라인을 가져온 퓨전 사극은 여성 취향을 자극하면서 크게 흥행을 하는 추세이다. 그 예로, 본 연구에서 다룬 세 편의 사극드라마 중 퓨전사극에 속하는 두 편의 드라마에서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 ‘로맨스’요소를 부각시켜, 같은 스토리를 다른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또한, TV드라마의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입는 의상은 캐릭터의 신분과 역할, 가치관 등의 외재적 요소와 더불어 내재적 요소인 인물의 성격, 심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기에 이는 극을 이끄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1)</sup> 이로 인해 사극 제작자들은 섬세한 인물 표현을 위해 전통복식에 맞지 않는 장식적 요소를 지나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그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고증의 오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극에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틀 내에서 복식을 표현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지만, 퓨전 사극은 허위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역사적 진위여부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기존 정통사극에 비해 퓨전 복식요소 사용이 자유롭게 나타나는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인 틀만 가져와 캐릭터의 개성을 살리는, 복식 표현이 비교적 자유롭게 나타나는 퓨전 사극의 의상과 정통사극의 의상을 비교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영상물에 나타난 장옥정과 그 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주영(2003)<sup>2)</sup>의 ‘영상물 『장희빈』의 복식분석’, 조미숙(2005)<sup>3)</sup>의 ‘영상물 장희빈 복식의 고증실태와 분석’, 진선미(2014)<sup>4)</sup>의 ‘현대 사극 장희빈에 나타난 조선시대 헤어스타일 연구’ 등이 있지만, 역대 장희빈 복식을 분석하면서도 퓨전사극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배제한 채 고증의 오류만을 지적한 경향이 있었으며, 2013년의 『장옥정, 사랑에 살다』의 복식을 다룬 최근의 연구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퓨전사극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권숙영(2011)<sup>5)</sup>의 ‘퓨전사극과 여성 취향 문화코드의 역할에 관한 연구 -KBS 『성균관 스캔들』을 사례로’, 우혜민(2013)<sup>6)</sup>의 ‘퓨전사극드라마의 특성에 관한 연구: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을 중심으로’, 유선혜(2011)<sup>7)</sup>의 ‘포스트모더니즘 시각으로 퓨전사극 『추노』’ 등이 있었지만, 같은 소재로 비교적 주기적으로 노출된 소재인 장옥정과 퓨전사극을 연결시킨 논문은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장옥정 소재 드라마들의 복식 재현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고, 퓨전사극의 영향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계속되는 트렌드인 사극의 퓨전화와 사극 복식에 녹아나는 현대적 감성의 적절한 방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장옥정’이라는 인물을 소재로 한 사극드라마는 1971년 MBC 일일 연속극 『장희빈』을 시작으로, 1981년 MBC 월화드라마 『여인열전: 제 1화 장희빈』, 1988년 MBC 수목드라마 『조선왕조 오백년: 제 8화 인현왕후』, 1995년 SBS 대하사극 『장희빈』, 2002년 KBS 특별 기획 드라마 『장희빈』, 2010년 MBC 월화드라마 『동이』, 그리고 2013년 SBS 월화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까지 지금까지 총 7편이 방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행하게 된 퓨전사극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퓨전사극의 영향을 받기 직전의 총 100부작의 정통 사극드라마인 2002년 KBS 특별 기획 드라마 『장희빈』부터 퓨전 사극으로 일컬어지는 총 60부작의 2010년 MBC 월화드라마 『동이』, 총 24부작의 2013년 SBS 월화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 총 3편을 선정하였다.

총 3편의 드라마 영상은 각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서 관람하였고, 사진자료는 『장희빈』(2002)의 1, 7, 8, 21, 24, 25, 27, 28, 31, 32, 39, 42, 44, 53, 54, 86회에서, 『동이』(2010)의 5, 17, 18, 23, 24, 36, 45, 50회에서,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의 6, 10, 11, 12, 13, 14, 15, 16, 17, 19, 22, 23화에서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각 드라마에서 같은 인물들 즉, 장옥정, 인현왕후 민씨 등의 주요인물들의 복식, 특히 여성 궁중 복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실제 조선시대 숙종조의 복식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각종 유물과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비교, 고찰해보았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극과 퓨전사극

현대사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고 퓨전화, 외모지향성, 사고의 유연성 등의 키워드가 대두되면서, 사극도 다양화, 감성화, 현대화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났다.<sup>8)</sup> 이러한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퓨전사극 이전의 사극과 차별되는 퓨전사극을 정의 내리고자 한다.

사극(史劇)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희극 또는 연극’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과거에 인류가 경험한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전개한 극으로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설화, 전설, 고전소설 등의 역사적 허구물을 드라마화한 것을 모두 사극으로 정의<sup>9)</sup>할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단군 이래, 한일 합방 이전까지를 아우르고 그 이후로는 시대극과 현대극으로 구분된다. 사극은 고중에 기반하여 내레이션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전하며 약간의 극적 요소를 더한 정통사극과,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흥미로운 극의 전개를 위해 트렌디 극의 요소들을 가미한 퓨전사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퓨전사극’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국어사전에 정의되거나 범주화된 단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퓨전사극’은 기존의 정통 사극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로 작가적 상상력이 많이 개입된 사극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

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혜민(2013)<sup>10)</sup>은 기존의 관습을 깨고,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창조한 사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권숙영(2011)<sup>11)</sup>에 따르면, 퓨전사극은 기존의 주류였던 정통사극과 비교하여 역사적인 고증이나 역사적인 실재가 중요하지 않으며, 기발한 상상력과 감각, 탄탄한 극작법을 사용하며, 정치성이 강한 내용에서 벗어나 역사와 성장물, 로맨스물, 의학물, 수사물 등의 다양한 장르물을 적절하게 혼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역사적 특성’보다는 ‘드라마적 특성’이 강조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즉 극 중 시대배경과 분위기는 과거이지만, ‘멜로 라인’을 추가하는 등 현대극의 감성을 녹여 사극의 대중화에 기여를 한 것을 퓨전 사극이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대표적인 퓨전 사극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자면, 『다모』(2003)를 시작으로 『대장금』(2003), 『태왕사신기』(2007) 등이 흥행하였고, 그 흐름을 따라 더 젊은 층을 아우르는 느낌의 『쾌도홍길동』(2008), 『추노』(2010), 『해를 품은 달』(2012) 등이 뒤를 이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드라마 중 『장희빈』(2002)은 나름의 정통사극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에 들어서서 방영된 『동이』(2010)와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는 위에서 정의한 퓨전사극의 범주에 들어간다.

### 2. ‘장희빈’의 역사적 배경

장옥정을 소재로 한 여러 사극에서 장옥정의 삶과 성격 등을 드라마로 구성할 때 필수적으로 소개가 되는 인물들로는 장옥정, 숙종, 인현왕후 민씨, 숙빈 최씨, 장현, 조사석, 장희재, 동평군, 명성왕후 김씨, 장렬왕후 조씨, 경종, 영조 등이 있다. 이 중 장옥정을 중심으로 가장 큰 전개요소로 작용하는 인물들은 숙종, 인현왕후 민씨, 장현, 장희재, 명성왕후 김씨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복식을 살펴보고 비교해보기 위해 선정할 세 드라마에서 꾸준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 인물 숙종, 인현왕후 민씨, 그리고 장옥정의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숙종은 조선의 제 19대 왕으로서, 현종의 외아들이며 1661년에 태어나 1674년부터 1720년까지 재위를 하였다. 그는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총 3명의 왕비를 두었고 희빈 장씨, 숙빈 최씨 등 총 6명의 후궁을 두었다. 그가 집권을 하던 시기는 봉당정치의 격동기로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극명했었고<sup>12)</sup>, 따라서 왕비의 자리 또한 정치색을 강하게 띠던 시기였다. 이때, 대비 명성왕후 김씨(1642-1683)의 후원을 받던 인현왕후 민씨(1667-1701)와 대왕대비 장렬왕후 조씨(1624-1688)의 입김으로 입궁하게 된 장옥정(1659-1701)의 이야기가 정치적으로도, 극적으로도 소재가 풍부하여 김만중(1637-1692)의 『사씨남정기』를 비롯해 현대의 여러 사극드라마까지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있다.

인현왕후 민씨는 숙종의 첫 계비로, 인경왕후 김씨가 일찍이 천연두라는 전염병으로 죽은 후 1681년(숙종 7년), 왕비로 책봉되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회임을 하지 못하고 1689년(숙종 15년)에 폐서인이 되었다가 1694년(숙종 20년) 복위되었지만, 1701년(숙종 27년), 35세의 나이로 죽게 된다.<sup>13)</sup> 현대극에서,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빚대어 쓴 『사씨남정기』에서도, 민씨는 착하고 순종적인, 하지만 ‘악녀 장희빈’에 의해 끝내 비극을 맞는 여자로 표현되곤 한다. 실제로도 악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지나, 장옥정을 악녀로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장옥정은 궁중나인으로 입궁한 후 여러 신분을 거쳤지만, 희빈 장씨의 신분으로 생을 마감했기에 장희빈이라 일컫는 것이 일반적이다. 숙종보다 2살 많았던 장옥정은 1659년(효종 10년) 아버지 장경(1623-1669)과 조사석(1632-1693)의 중이었던 어머니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여윈 후, 숙부 장현(1613-1695)의 집안에서 자랐다. 장현은 역관으로 거부가 된 인물로 남인 세력이며, 조사석은 장렬왕후 조씨의

사촌으로, 장옥정은 숙부 장현과 장렬왕후 조씨, 그리고 동평군 이항(1660-1701)등의 주선으로 궁중나인으로 입궁하게 된다. 장옥정은 얼굴이 아름다웠고, 숙종 6년 인경왕후 승하 이후 숙종의 은총을 받았으나 대비 명성왕후 김씨의 큰 반대로 쫓겨나 1683년(숙종 9년) 명성왕후의 승하 이후 다시 입궐하여 1686년(숙종 12년) 숙원(종4품 후궁)이 되었다. 1688년(숙종 14년) 정2품 소의로 신분이 올랐으며, 왕자 이윤(후의 경종)을 낳았다. 또한 1689년(숙종 15년) 장옥정은 남인들과 결탁하여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게 하였고, 그녀는 소의에서 정1품 희빈이 되었다.<sup>14)</sup> 이와 함께 장옥정과 그 세력들은 인현왕후 민씨를 폐위시켰으며, 이로써 서인 세력을 압박하고 남인의 정치를 펼쳐갔다. 결국, 희빈 장씨는 전무후무하게 후궁에서 비(妃)로 책봉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술옥사(서인이 남인세력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 1694년)로 인해 1694년(숙종 20년), 희빈으로 강등되고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의 자리를 되찾는다. 숙종 27년인 1701년, 희빈 장씨가 신당을 설치하여 인현왕후가 죽기를 기도한 사건이 발각되어 처형당하며 4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 3. 드라마 별 플롯

연구 범위로 잡은 세 드라마 『장희빈』(2002), 『동이』(2010),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는 공통적으로 숙종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잡고 있으며, 장옥정, 인현왕후 민씨, 숙빈 최씨 등의 여성들이 등장해 숙종을 중심으로 사랑, 정치, 야망과 같은 스토리를 펼쳐나간다. 하지만 분명 세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옥정 및 주위 인물들의 성격은 서로 다르게 그리고 있으며 드라마 구성도 상이하다.

2002년작 KBS드라마 『장희빈』에서는 입궁 전의 장옥정부터 사약을 받고 죽는 장옥정까지의 드라마틱한 삶을 그리고 있다. 이때, 장옥정은 야망 있고 독기서린 모습으로 그려지며 악녀로 비추지기도 한

다. 극의 초반부터 이런 당돌한 모습을 보여주며 일관성을 보인다. 반면, 2013년작 SBS 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는 정통 역사극에서 한참 벗어난 퓨전 사극으로, ‘장옥정’이라는 콘텐츠에 ‘사랑’이라는 코드를 입혀 재해석한 극이다. 이 또한 『장희빈』과 같이 장옥정이 입궁하기 전의 삶부터 죽는 장면까지 구성되어 있고 성격도 당당하게 그려지지만, 2002년작에 비해 한없이 여리고 착한 캐릭터를 부각시킨다. 물론 품계가 오를수록 사랑에 눈멀어 계락을 찢는 약녀의 모습을 잠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정치가 아닌 사랑을 위한 극적 요소로 쓰이고, 결국 마지막에 사약을 받을 때는 강제성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죽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와 같이 『장희빈』과 『장옥정, 사랑에 살다』는 캐릭터의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장옥정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궁중나인으로 입궁을 하고 특별상궁, 숙원, 희빈, 중전을 거쳐 희빈으로 강등되고 사약을 받아 죽는 일생을 공통적으로 시간순서대로 그려낸다. 하지만 2010년작 MBC 드라마 『동이』와 같은 경우, 우선 장옥정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아니라 숙빈 최씨를 주인공으로 하여 숙종과의 진정한 사랑을 그린 드라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장옥정은 주인공과 대립되는 인물이며, 극 전개상 숙빈 최씨가 등장할 때 이미 특별상궁에서 숙원의 품계를 받을 때이고, 본격적으로 극이 전개될 때에는 희빈 장씨, 혹은 중전으로서의 모습이 큰 비중이 차지한다. 따라서 입궁 전이나 궁중나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결같이 화려하고 강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극중 성격 또한 야망을 가진 정치적 인물로 그려진다. 이 극에서는 장옥정이 사약을 받고 죽은 이후에도 숙빈 최씨를 중심으로 여러 회가 더 진행된다.

### III. 조선 숙종대의 궁중 여성 복식

앞에서 선정한 두 인물, 즉 장옥정과 인현왕후 민

씨의 복식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조선시대 숙종대의 궁중 여성 복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궁중 여성의 의상을 아이템 별로 분석하고 당대의 여자 두식 또한 알아보았다.

#### 1. 가례복식(적의, 원삼)

##### 1) 적의

적의는 왕비의 법복으로, 숙종인현후가례에서 나타난 적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적의(翟衣), 별의(別衣), 내의(內衣), 수(綬), 폐슬(蔽膝), 상(裳), 대대(大帶), 하피(霞帔), 수(繡), 패옥(佩玉), 백옥규(白玉圭), 적말(赤襪), 적석(赤舄), 체발(髻髮).<sup>15)</sup> 적의는 대홍단으로 만들며 여미의 형태가 배자와 같이 앞길이 서로 마주본다. 앞, 뒤, 양 어깨에 총 4개의 금수오조 원룡보를 달고, 양 앞길에 각 7개씩, 뒷길에 19개, 양 소매에 각 9개씩 총 51개의 수원적(繡圓翟)을 붙인다. 적의를 입고 난 후 어깨에 걸치는 천을 ‘하피’라 하였는데, 이는 안은 홍초, 겉은 흑단에 운하(雲霞) 28개, 적계문(翟鷄紋) 26개를 교대로 금박하였다.<sup>16)</sup> 수식은 ‘대수(大首)’라고 하여, 숙종대에는 체발은 20단으로 하고 27개의 비녀를 썼으며, 이는 시대마다 차이가 있었다<그림 1>.

##### 2) 원삼

원삼(圓衫)은 비빈의 소례복(小禮服)이자 내·외명부(內 外命婦)의 대례복(大禮服)이자 서민층의 혼례복으로, 넓은 소매의 끝에 흰색 한삼(汗衫)을 달며 궁중 여성들의 품계에 따라 그 색을 달리하였다. 왕비의 원삼은 봉문이 금박된 홍원삼이었으며, 내·외명부의 원삼은 화문이 있는 녹원삼으로 소매 색동 배색은 다홍색과 노랑색이었다<그림 2>.<sup>17)</sup> 원삼 외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인 노의, 장삼 등이 있었으나 점차 ‘원삼’이라는 용어에 집약된 것으로 본다.<sup>18)</sup> 원삼에는 일반적으로 족두리를 썼다.



<그림 1> 적의  
(출처: <http://club.yourstage.com>)



<그림 2> 녹원삼  
(출처: 『한국복식사』, 1998, p.256)



<그림 3> 스란치마  
(출처: <http://blog.daum.net/gjuzzang/8515223>)



<그림 4> 대란치마  
(출처: <http://m.blog.daum.net/glim54/15950197>)

## 2. 당의

당의(唐衣)는 궁중 예복의 하나로 좁은 소매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은 가진, 저고리와 비슷한 형태의 여자 옷옷이다. 당의의 ‘당’은 저고리 길의 양 끝이 뾰족한 데서 ‘당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sup>19)</sup> 당의 또한 궁중 여성들의 품계에 따라 금박, 직금, 문양, 보 등의 유무가 같랐고 공통적으로 소매 끝에 흰색의 거들지를 달았다.

## 3. 저고리

저고리는 모든 여성들이 입었던 평복의 옷옷으로, 궁중에서도 예복 아래에 갖추어 입었다. 저고리의 형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길이가 짧아지고, 품이 좁아지고, 배래가 직선이 되고, 소매가 짧아지고, 깃이 다양화되며 여러 요소들이 변화한다. 왕비의 저고리 색은 주로 자색, 그 외에 초록색, 남색, 백색이 사용되었고<sup>20)</sup>, 왕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왕실 여성들의 깃 색상은 자주색이 주로 쓰였다.<sup>21)</sup>

## 4. 치마

궁중에서 입는 치마 중 대례복으로 입는 치마는 금박의 스란단이 두 줄인 대란(大欄)치마, 소례복으로 입는 치마는 스란단이 한 줄인 스란치마라 하였는데<sup>22)</sup><그림 3><그림 4>, 이는 보통의 치마보다 폭도

더 넓고 길이도 30cm이상 더 길었다. 스란의 문양은 품계에 따라 달리 금박하였다. 왕비는 용문(龍紋), 빈과 공주는 봉황문(鳳凰紋), 사녀(사대부 부녀)는 글자와 화문(花紋).<sup>23)</sup> 하지만 스란치마와 대란치마의 명확한 구분은 19세기에 들어서야 나타났다.

## 5. 두식

### 1) 큰머리(띠구지머리)

체를 이용해 형태를 만든 후 어여머리 위에 얹은, 궁중 의식 때 하던 머리이다. 이를 ‘띠구지’라는 나무로 된 머리 장식으로 대체한 것은 정조대에 이르러서이다<그림 5>.<sup>24)</sup>

### 2) 어여머리

체를 땅아 두상을 따라 두른 형태로, 어염 족두리를 쓰고 그 위에 얹어 비녀 등으로 고정하고 화잠(花簪) 등으로 장식하였다<그림 6>.<sup>25)</sup>

### 3) 대수

비빈의 대례시의 머리장식으로, 체를 곱게 빗어 어깨까지 내린 후 양 끝에 봉 장식의 비녀를 꽂고 머리 위에 여러 장식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그림 7>.

### 4) 첩지머리

예장할 때의 머리로, 품계에 따라 첩지의 형태를 달리했다. 왕비의 경우 도금으로 봉을 조각하였고,



<그림 5> 큰머리  
(출처: <http://chilsungbulkyo.co.kr>)



<그림 6> 어머머리  
(출처: <http://www.beautysu.com>)



<그림 7> 대수머리  
(출처: <http://www.seoulmaster.co.kr>)



<그림 8> 첩지머리  
(출처: <http://www.betv.co.kr>)

내외명부는 도금, 은, 흑각 등으로 개구리 형태를 만들어 머리에 고정시켜 쪽을 지었다.<sup>26)</sup> 궁중에서는 평상시에도 이 머리를 하였고, 이는 신분을 나타내주었다<그림 8>.

#### IV. 사극 드라마에 나타난 장옥정 및 주요인물의 복식 비교 분석

효율적인 비교를 위해 인물 별로 나누어 분석을 해보았고, 장옥정의 복식을 분석할 때는 드라마 플롯 순서대로 나열하여 숙원 첩지를 받을 때의 원삼, 숙원 신분의 당의 치마, 희빈 신분의 당의 치마, 왕비 책봉 의례 시 적의, 중전 신분의 당의 치마를 비교하였고 두식은 마지막에 비교하였다. 인현왕후 민씨는 평상복인 당의, 치마와 예복인 적의를 비교해 보았다.

#### 1. 각 드라마에 나타난 장옥정 복식 비교 분석

세 드라마가 방영된 시기가 주관한 방송사가 모두 다른 만큼, 장옥정에 대한 이미지 표현 또한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캐릭터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의 고중에 연출이 더해지곤 하는데, 주인공인 ‘장옥정’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다.

원삼은 세 드라마 모두 후궁 숙원(淑媛)이라는 품계의 첩지를 받을 때에 예복으로 착용하였다. 내명부의 원삼은 녹원삼에 화문이 찍힌 것이 기본이지만 이를 그대로 재현한 경우는 아래의 <표 1>에서와 같이 2002년작의 장옥정이 유일했고, 이마저도 숙원이 될 때의 원삼은 희빈이 될 때의 원삼보다 연한 녹색으로 나타났다. 『동이』와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는 아청색과 연한 보라색의 원삼을 선보였는데, 전자의 경우 금박의 문양에도 디자인적 요소를 넣어 인물

<표 1> 숙원 첩지를 받을 때의 원삼 비교

『장희빈』(2002)	『동이』(2010)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



이 더욱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보이도록 그려냈다. 후자는 색상만 연한 보라색으로 바뀌고 소매의 색동 배색이 녹두색과 짙은 청색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고증과 느낌을 비슷하게 살려냈다. 두식 또한 같은 띠구지머리(큰머리)로 표현되었으며, 부속 장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종4품 숙원 장씨의 품계를 가지고 있을 때의 장옥정의 복식은 <표 2>에서와 같이 절제된 미를 보여준다. 『동이』에서는 장옥정이 주인공이 아닌 관계로 숙원 시절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고, 『장희빈』에서 장옥정은 최소한의 문자 금박이 드문드문 들어간 당의와 스란치마를 입었고, 이는 상하의 배색만 바뀔 뿐 같은 형태를 유지했다. 2013년작의 장옥정은 고증과는 거리가 먼 현대적인 디자인을 고수했고, 주로 꽃, 나비 등의 자수를 규칙성 없이 배치하였다. 숙원의 신분에서는 자수의 크기도 작고 색상도 강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에게 ‘장희빈’이라는 이름이 고유명사화

되어있는 만큼, 희빈 장씨의 품계를 가진 장옥정은 아마 세 드라마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제작자의 입장에서 인물 성격의 가장 부각하기 위해 의상에 큰 효과를 준 부분일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각 드라마에서 다양하고 개성 있게 재 디자인되었다. 고증에 가장 충실했던 재현물은 역시 2002년 작의 장옥정이었다. 당의와 스란치마의 색상만 바뀔 뿐 디테일과 금박의 문양 및 형태는 일관되었으며, 이는 숙원의 품계에서의 당의에 어깨와 길에 금박이 추가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퓨전사극의 영향을 받은 2010년의 『동이』와 2013년의 『장옥정, 사랑에 살다』의 장옥정은 고증과 전혀 맞지 않는,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의상을 보여준다. <표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동이』에서는 당의의 옆선에 금박과 은박이 더해진 선(線)을 붙이고, 어깨의 금은박도 보(補)가 연상되는 원의 형태로 나타나곤 했다.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는 더 과감해진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주로 꽃무늬의 자수를 당의 전체에 수놓

<표 2> 숙원 신분의 당의 및 치마 비교

『장희빈』(2002)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
	

<표 3> 희빈 신분의 당의 및 치마 비교

『장희빈』(2002)	『동이』(2010)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
		



고 전통 배색과는 거리가 먼 배색으로 미적 요소를 부각시켰다. 이 지수는 품계가 높아질수록 크고 화려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적의를 착용하는 장면에서만큼은 세 드라마 모두 고증을 그대로 따르는 방향으로 의대(衣襟)를 구성했다. 물론 수식의 모양, 개수 등의 디테일한 면에서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행사인 왕비 책봉에 예를 갖추는 장면이기에 전체적인 구성과 색상에 다른 변화를 두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표 4>.

극중에서 장옥정이 중전의 신분을 유지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 작장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짧은 컷 수 안에 중전의 화려함과 위엄을 인상 깊게 남도록 하기 위해서 장식적 요소가 가장 화려하게 나타났다<표 5>. 물론 『장희빈』에서는 희빈 장씨의 당의에 오조원룡보를 추가하고 스란치마 대신 대란치마를 입으며 여전히 절제된, 고중에 충실한 디자인을 보였지만, 나머지 두 드라마에서의 장옥정은 더욱 화려한 복식을 보였다. 우선, 2010년에 방영된 『동이』의 장

옥정의 복식은 대란치마의 디자인에 큰 비중을 두어 전신이 나올 때 화려함이 돋보이도록 구성하였다. 치마 위에 바로 금 은박을 하는 기존의 디자인과 달리, 당의 색의 배경에, 현대적인 문양을 금박과 은박을 섞어 구성한, 너비가 과장된 스란단이 부착된 대란치마로 인물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당의와 연결되는 느낌도 주어 통일감을 주었다.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 나타난 당의는 희빈 장씨 신분의 당의에 오조원룡보를 추가한 모습을 보였다. 여전히 자수 장식은 화려했으며, 당의와 같은 색의 자수를 넣어 단조로움을 피한 것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나타난 대란치마의 스란단 또한 매우 크게 강조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두식의 표현에서는 2002년작과 2010년 이후의 작품들과 다른 양식을 보였다<표 6>. 『장희빈』에서는 어여머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두 작품에서는 첩지머리를 고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첩지머리의 형태는 영조대에 가체로 인한 여러

<표 4> 왕비 책봉 의례 시 적의 비교

『장희빈』(2002)	『동이』(2010)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
		

<표 5> 중전 신분의 당의 및 치마 비교

『장희빈』(2002)	『동이』(2010)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
		

사건들로 인해 체계금지령을 내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여 순조대에 가서야 정착된 머리<sup>27)</sup>, 두 드라마의 두식은 엄밀히 말하면 고증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속된 해외에서의 사극드라마의 흥행으로,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타 시대와 차별화되는 조선시대만의 미적 요소가 필요했고, 그러한 모습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 두식의 차별화로, 『동이』 제작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쪽머리의 우아함을 살리고, 현대적 감각을 선보이기 위해 고증을 거스르고 가체를 없앴다고 밝혔다.<sup>28)</sup> 하지만 『장희빈』에 나타난 수식도 완벽히 고증된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어염족두리의 경우, 검정 공단 8장을 붙이고 솜을 넣어 실끈으로 조여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sup>29)</sup>, 극중에서는 화려한 당의 색과 맞추기 위해 자주색 및 홍색의 어염족두리를 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수식으로는 뿔잠, 비녀, 첩지, 뒤꽂이 등이 있는데, 장식적 요소인 만큼 현대적 요소가 극대화된 부분이 많다. 디자인된 첩지는 배씨댁기의 느낌이 나는 첩지,

뿔잠의 느낌이 나는 첩지 등 드라마마다 고수하는 형태가 있었으며, 비녀와 뒤꽂이 같은 경우도 품계가 오를 때마다 크고 화려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하면 퓨전사극의 영향을 받기 전인 2002년의 『장희빈』에서 선보이는 수식은 한정적이고 절제되어 있다.

## 2. 각 드라마에 나타난 인현왕후 민씨 복식 비교 분석

인현왕후 민씨는 곧은 성품과 위엄으로 한결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다. 따라서 수식과 같은 장식적 요소를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당의나 치마의 표면에 과한 장식을 하지는 않았다. <표 7>을 보면, 『장희빈』에서 민씨의 당의 및 치마는 장옥정이 중전의 자리에 있을 때의 복식과 색깔만 다를 뿐, 오조원릉보가 부착된 금박 당의와 대란치마를 입는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 『동이』의 민씨의 당의는 주로 옥색, 연두색, 연분홍색 등을 입으며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하였고, 그에 비해 비교적 무거운 색감의 큰 오조원릉보가 짙

<표 6> 두식 비교

『장희빈』(2002)	『동이』(2010)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
		

<표 7> 인현왕후 민씨 당의 및 치마 비교

『장희빈』(2002)	『동이』(2010)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
		

은 색의 깃 바로 밑에 올라 붙어 시선을 위로 올려준다.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 민씨의 복식 또한 매우 부드러운 색감의 배색을 이어간다. 특이점이려면, 기존의 금색의 오조원룡보 대신 은사로 된 오조원룡보로 장옥정과는 다른 정체성을 드러냈다. 은박 장식 또한 중전의 금·은박이라고는 할 수 없는, 큰 크기의 화문을 넓게 배치해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인현왕후 민씨가 가례를 치를 때 혹은 후궁에게 첩지를 내릴 때 입었던 복식은 적의와 대수머리로 세 드라마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었다<표 8>. 장옥정의 적의와 같이 고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장옥정이 입은 적의와 같은 의상을 착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드라마 『장희빈』에서는 장옥정의 적의와 인현왕후 민씨의 적의의 차이가 어깨에 두른 하피 색의 차이로 나타났다. 장옥정의 하피는 검은색 배경에 문양이 금박 되어있었다면, 인현왕후 민씨의 하피는 갈색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는 보의 배경색이 달리 나타났는데, 장옥정은 배경색이 적의 색과 같은 적색이었지만, 인현왕후 민씨 적의의 보 배경색은 검은색으로 표현되었다. 드라마마다 이러한 차이를 둔 이유는 캐릭터의 이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예상된다. 이 외에 세 드라마에서 표현한 적의의 차이점으로는 규의 크기, 보의 위치와 크기 등을 들 수 있었는데, 규와 보의 크기는 『장희빈』에서 가장 작게 표현되었고, 『동이』에서 보의 위치가 가장 위에 달렸다.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 보는 배경색이 검은색으로 나머지 드라마들과 달랐다.

### 3. 드라마 별 의상 비교분석

세 드라마의 의상 차이를 최종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는 아래의 <표 9>, <표 10>과 같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궁중 여성 복식인 당의·치마와 적의를 각각 색상, 형태, 장식을 기준으로 두어 조형성을 비교해보았다.

전통 의상과 각 드라마의 의상은 당의·치마에서 가장 큰 조형적 차이점을 보였다<표 9>. 한복의 가장 독특한 미는 고전적이고 화려한 색채라고 보는데<sup>30)</sup>, 우선 당의의 색상부터 살펴보면, 전통 궁중당의에서는 연두색, 남송색, 흰색(소색), 자적색 순으로 색을 사용한다고 하였고 연두당의를 가장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sup>31)</sup>, 세 드라마 모두 이를 정확히 지키고 있지는 않았고 제약 없이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방영된 『동이』와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는 연분홍, 연보라, 형광 빛이 도는 색상들 등을 많이 사용하여 현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양 어깨와 앞, 뒤에 붙은 보의 색상은 모두 금색의 오조원룡보를 부착하였지만, 유일하게 『장옥정, 사랑에 살다』의 인현왕후만 은색의 오조원룡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극 캐릭터 간의 차별성 및 캐릭터 부각을 위한 장치

<표 8> 인현왕후 민씨 적의 비교

『장희빈』(2002)	『동이』(2010)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
		

였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치마의 색상은 자색, 대홍색, 남색, 자적색 순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고, 세 드라마 모두 이를 나름 충실히 반영한 편이지만, 기록에는 없었던 분홍색의 사용이 잦게 나타났다. 하지만 세 드라마 모두에서 남색과 대홍색의 사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아, 색상에 있어서, 치마보다는 당의에 퓨전적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치마는 고전적인 색상을 고수하는 경향도 볼 수 있었다.

당의·치마의 형태적 측면을 보면, 전통 궁중당의는 길의 길이가 길고, 폭이 좁으며, 당코가 뾰족하게 표현되었다. 반면, 현대 사극에서의 당의는 거의 폭이 넓고 짧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세 드라마에서도 고증보다 짧고 넓은 당의 형태를 보였지만 『동이』

에서의 당의는 다른 드라마에서보다 비교적 길게 표현해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코의 경우, 전통 당의에서는 곡선적 미가 강조되어 매우 뾰족하게 표현된 반면, 세 드라마 모두에서 당코가 뾰족하게 표현된 경향을 보였다. 오조원릉보의 경우, 동정 바로 아래이자 깃에 해당하는 부분에 달린 것이 전통의상에서 나타난 형태인데, 이를 따른 경우는 2010년의 『동이』가 유일했으며, 『장희빈』에서는 깃 아래에,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는 가슴보다 아래에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름은 단색의 긴 고름이 나타난 전통복식과 달리, 세 드라마에서 각각 금박의 짧은 고름, 금박의 긴 고름, 단색 양면의 짧은 고름이 나타났다. 치마는 『장희빈』을 제외한 2010년대의 두

<표 9> 당의·치마

	전통복식	『장희빈』(2002)		『동이』(2010)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	
		장옥정	인현왕후	장옥정	인현왕후	장옥정	인현왕후
대표 이미지							
색상	당의	연두색, 남송색, 흰색(소색), 자적색 순	청록색, 홍색, 남색, 진분홍색, 연두색 등	진분홍색, 하늘색, 남색, 민트색, 코랄색 등	연분홍색, 연두색, 노랑색, 형광분홍색, 민트색, 형광주홍색 등		
	보	금색	금색	금색	금색	은색	
치마	자색, 대홍색, 남색, 자적색 순	홍색, 남색, 청색, 분홍색, 초록색 등	남색, 분홍색, 홍색, 흑색 등	연보라색, 자적색, 홍색, 남색, 분홍색 등			
형태	당의	길고 얇음, 코가 뾰족	짧고 넓은, 코가 뾰족	비교적 길고 넓은, 코가 뾰족	짧고 넓은, 코가 뾰족		
	보	동정 아래, 깃에 위치	깃 아래에 위치	동정 아래, 깃에 위치	가슴 아래 위치		
	고름	단색의 긴 고름	금박의 짧은 고름	금박의 긴 고름	양면 단색의 짧은 고름		
	치마	스란단의 너비	스란단의 너비가 고증과 같음	스란단의 너비가 매우 넓은	스란단의 너비가 매우 넓은		
장식 디자인	어깨, 소매 상단, 앞뒷길의 하단에 금박 장식	어깨, 소매 상단, 앞뒷길의 하단에 금박 문양 층이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은 수복 자문으로 메운 형태	2003년작의 당의와 같은 형태이지만, 금박과 은박이 한데 섞인 디자인	당의 전체에 화려한 자수	2003년작의 당의와 같은 형태		

사극에서 모두 과장된 너비의 스란단이 나타나, 현대극의 분위기를 고조시켜주었다.

장식적인 측면인 당의 전반의 디자인은, 전통복식에서는 어깨, 소매 상단, 앞뒷길의 하단에 금박 장식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지만, 『장희빈』에서의 당의에는 어깨, 소매 상단, 앞뒷길의 하단에 금박 문양층이 들어가는 것에 더불어, 나머지 공간은 수복 자문으로 메운 형태를 보였다. 『동이』에서 당의는 『장희빈』의 당의와 같은 형태이지만, 금박과 은박이 한데 섞인 퓨전양식의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러한 퓨전적 경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는 장옥정과 인현왕후가 각각 다르게 디자인된 당의를 입고나왔는데, 인현왕후는 전작들과 다른 디자인의 당의를 입었지만, 극중 인물들 중 유일하게 장옥정의 당의만 특별하게 금박이 아닌 자수로 꾸며져 있고 자수의 배치 또한 자유롭다.

적의의 경우, 다른 의상들에 비해 고증이 잘 지켜지고, 세 드라마 간의 차이점이 가장 적은 의상이었

다<표 10>. 보의 크기와 위치, 보의 색상, 규의 색상, 모양과 크기, 하피 색상, 속에 입은 중단 깃의 차이 정도의 미세한 차이만을 보였다. 보의 크기는 『장희빈』의 적의에서 가장 작은 크기로 표현되었고, 보의 위치는 『동이』에서 가장 위에 붙여 표현하였다. 보의 배경색은 『장옥정, 사랑에 살다』의 인현왕후 민씨의 적의만 유일하게 검은색으로 나타났다. 규의 크기는 『장희빈』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고, 『동이』의 장옥정이 들고 있는 규만 뾰족하지 않고 둥근 모습을 보였다. 하피의 색상은 『장희빈』의 인현왕후 민씨의 것만 갈색으로 표현되고 나머지는 모두 검은색으로 표현되었다. 적의 속에 입은 중단의 깃 부분도 영상물을 통해 미세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장희빈』에서는 무늬가 없는 적색 깃을 확인하였고, 『동이』에서는 흰색 동정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옷옷에 가려졌거나 중단을 입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었고,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는 고층처럼 깃에 불문의 금박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디테일한 부

<표 10> 적의

		전통복식	『장희빈』(2002)		『동이』(2010)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	
			장옥정 	인현왕후 	장옥정 	인현왕후 	장옥정 	인현왕후 
색상	적의	대홍단	대홍단		대홍단		대홍단	
	중단	불문 금박의 홍색 깃	금박 없는 홍색 깃		백색의 중단 혹은 중단을 입지 않음		불문 금박의 홍색 깃	
	하피	흑단	흑단	갈색	흑단		흑단	
	규	백옥	백색		백색	백옥	백옥	
형태	보	깃에 위치	기존보다 아래 달린 보		깃에 위치, 기존보다 크기가 큰 보		배경색이 흑색	
	규	뾰족한 규	작은 크기의 뾰족한 규		둥글고 휜	뾰족한 규	뾰족한 규	
장식	적의의 장식적인 부분은 묶는 끈 형태 등의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고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분에서는 세 드라마가 혹은 같은 드라마 내에서 인물 들끼리 차이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적의에서 가장 현대적 요소가 배제되고 고증을 잘 따랐음을 알 수 있었다.

## V. 결 론

2000년대 이후 현대사회의 대중문화는 점점 소통, 변화, 퓨전, 교류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발전하였고, 중 장년층의 전유물이던 역사극이라는 장르 또한 그 흐름을 타 퓨전사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 사극이 퓨전사극으로 유행이 옮겨가면서, 대중은 항상 똑같이 고증된 의상이 아닌 현대적 감성을 녹인 새로운 디자인의 사극의상을 원했고, 그 의상 역시 퓨전화되고 현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숙종의 후궁 장옥정을 소재로 한 2002년 KBS 특별 기획 드라마 『장희빈』, 2010년 MBC 월화드라마 『동이』, 2013년 SBS 월화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 총 세 편의 사극 드라마에 나타난 복식을 분석하였다. 세 편 모두에서 비중 있게 등장하는 장옥정과 인현왕후 민씨의 궁중의상을 영상을 분석하면서 살펴보았고, 각 인물들의 의상이 각 드라마에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었는지, 고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나온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통복식에 비해 퓨전 사극 의상은 색상 및 장식적인 측면에서 고증을 따르기보다 현대적 요소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당의, 즉 상의에서 크게 나타났는데, 사극의 특성상 화면이 비교적 정적으로 구성되고 상반신만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에 상의 디자인에 강조를 많이 했음으로 사료된다. 『장희빈』에서 이전의 기존 사극에서보다 짧고 넓은 당의, 고증보다 화려한 색상의 사용은 2002년 당시의 흐름에서는 매우 선풍적인 일이었으며, 사극의 상 퓨전화의 초기단계를 볼 수 있었다. 반면 퓨전사

극 유행의 전성기 작품에 속하는 『동이』에서는 더 과감해진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당의에 금박과 은박을 함께 섞어 표현하거나, 치마의 스란단 부분에 강조 색의 천을 덧대어 그 위에 금박을 장식하여 화려함을 더욱 강조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퓨전사극의 유행이 계속되던 시기의 작품인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의 기존의 궁중복식에서 보이지 않는 요소인 자수 장식이 된 당의는 매우 현대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오조원룡보를 은색으로 표현한 점도 고증보다 캐릭터 형성 및 차별화에 더 무게를 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옥정이라는 극중 인물이 신분의 변동이 크고 그에 따른 성격 및 환경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를 의상을 통해 표현하려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0년의 『동이』는 장옥정이 주인공인 나머지 두 드라마와 달리 숙빈 최씨를 주인공으로 한 사극 드라마로, 장옥정이 악역으로 그려졌고, 이는 장옥정의 극도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복식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세 드라마에서 장옥정은 나인, 숙원, 희빈, 중전 등 4개 이상의 신분을 오가는데, 품계가 높아질수록, 장옥정의 야망이 커질수록, 당의와 치마의 장식과 수식(修飾)이 화려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극중 전개 내내 한가지의 신분에 머무르는 숙종과 인현왕후 민씨의 궁중복식은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대체적으로, 2000년 후반부터의 퓨전사극의 트렌드가 계속되던 시기의 드라마들과, 정통사극으로 일컬을 수 있는 2000년 초반의 드라마 사이의 차이가 컸다. 퓨전사극에 속하는 두 드라마 『동이』와 『장옥정, 사랑에 살다』는 디자인만 각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 다를 뿐, 형태적 측면에 있어서는 고증을 지키며 공통적으로 소재나 색상, 장식 등으로 현대적 감각을 선보였고, 비교적 정통사극에 속하는 『장희빈』에서는 여성 복식에 색상의 다양화만 주었을 뿐, 한 디자인을 고수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퓨전사극이 처음 소개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랑 받

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 사이의 몇 년 되지 않는 기간 사이에, 사극 제작자들의 여러 실험적인 시도 끝에, 퓨전사극이라는 명목 하에 기존에 선보일 수 없었던 복식의 다양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오랜 기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극 의상이 퓨전사극의 흐름을 틈타 현대의 감성을 반영하고 한복 유행을 주도하게 되었다. 물론 이는 여러 고증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시대에 현대적 감성을 불어 넣는 동시에 캐릭터의 내재적 요소인 성격 및 외재적 요소인 상황을 복식을 통해 쉽게 전달해준다는 장점이 있어 퓨전복식을 사용하는 사극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인기는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되는 추세이고, 역사 문제도 여러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 과도한 복식의 퓨전화는 한국의 정체성을 오히려 반감시킬 것이다. 김영란(2007)은 한국적인 고유문화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한국적 디자인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sup>32)</sup>, 이를 위해서는 고증의 재현과 의상 디자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철저한 고증에 기반한 현대적 감성의 사극 의상 개발은 드라마의 흥행뿐만 아니라 사적 자료의 재현물로서의 가치, 더 나아가 한국 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같은 인물을 소재로 서로 다른 시기에 나온 세 드라마 『장희빈』, 『동이』, 『장옥정, 사랑에 살다』를 통해 퓨전사극의 영향, 극의 전개 차이, 관점 차이 등에 의해 다르게 전개된 의상 디자인을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다만, 연구 대상이었던 세 드라마 중 두 드라마의 시기가 최근에 편중되어 있었던 것이 아쉽다. 2002년의 작품과 2010년, 2013년 작품들 사이, 2005-2006년 즈음에 같은 인물 소재의 한 작품이 더 있었다면, 보다 신뢰도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세 드라마가 방영된 방송사가 모두 달랐다는 점에서, 의상 디자인 및 제작, 혹은 공급에 있었던 외부적 요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을 것이지만, 시기가 달라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배제한 점도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시각적 자료인 영상물에 비해, 속종대의 복식을 고증할 때엔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문양 및 장신구 등에 전문성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사극의상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봉현숙 (2000). TV사극 드라마 의상의 고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9.
- 2) 김주영 (2003). 영상물 <장희빈>의 복식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29.
- 3) 조미숙 (2005). 영상물 「장희빈」복식의 고증실태와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2.
- 4) 진선미 (2014). 현대 사극 장희빈에 나타난 조선시대 헤어스타일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2.
- 5) 권숙영 (2011). 퓨전사극과 여성 취향 문화코드의 역할에 관한 연구-KBS <성균관 스캔들>을 사례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66.
- 6) 우혜민 (2013). 퓨전사극드라마의 특성에 관한 연구: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02.
- 7) 유선혜 (2011). 포스트모더니즘 시각으로 본 퓨전사극 <추노>,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1.
- 8) 이영혜, 강순제 (2011). 2000년대 사극의상에 표현된 대중문화 패러다임, 복식, 61(9), pp.131-147.
- 9) 주창운 (2005). 텔레비전 드라마\_장르.미학.해독, 서울: 문경, p.38.
- 10) 우혜민 (2013). 퓨전사극드라마의 특성에 관한 연구: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 11) 권숙영 (2011). 퓨전사극과 여성 취향 문화코드의 역할에 관한 연구-KBS <성균관 스캔들>을 사례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 12) 김아네스 (2006). 「장희빈, 악녀의 누명을 쓴 정치의 희생양」, 『내일을 여는 역사』23, 출판도시: 내일을 여는 역사, p.156.
- 13) 지두환 (2002). (속종 후궁) 장희빈, 서울: 역사문화, p.43.
- 14) 지두환. 앞의 책, p.90.
- 15) 위의 책, p.103.
- 16) 유송옥 (1998). 한국복식사, 서울: 수확사, p.170.
- 17) 안명숙 (2007). 우리 옷 이야기, 서울: 예학사, pp.138-139.
- 18) 김영숙, 김명숙 (1998). 한국복식사, 청주: 청주대학

- 교 출판부, p.192.
- 19) 안명숙. 앞의 책, p.142.
  - 20) 유송옥. 앞의 책, p.176.
  - 21) 이민주. 앞의 책, p.152.
  - 22) 안명숙. 앞의 책, p.143.
  - 23) 유송옥. 한국의 복식, 서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p.242.
  - 24) 안명숙. 앞의 책, p.157.
  - 25) 김영숙, 김명숙. 앞의 책, p.221.
  - 26) 김영숙, 김명숙. 앞의 책, pp.221-222.
  - 27) 김영숙, 김명숙. 앞의 책, p.219.
  - 28) 배선영 (2010년 2월 22일). ‘동이’ 가체는 없다! ‘시대 고증’ 대신 ‘현대 감각’ 택했다, 뉴스엔, 자료검색일 2014. 2. 10. [http://www.newscn.com/news\\_view.php?uid=201002220830091001](http://www.newscn.com/news_view.php?uid=201002220830091001)
  - 29) 김영숙 (1999). 조선조후기궁중복식: 영왕복식중심, 서울: 명원문화재단, p.280.
  - 30) 이주현, 김찬주, 유혜경, 홍나영 (2001). 현대 한국인의 한복 착용: 아시아 전통문화양식의 전개과정과 관련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1), p.45.
  - 31) 권순교, 박선경 (2006). 전통복식의 현대적 활용화를 위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6(2), p.5.
  - 32) 김영란 (2007). 21세기 이후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7(2), p.7.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stumes of Fusion Historical Dramas Aired after 2000

## - Focused on 『Jangheebin』, 『Dongyi』 and 『Jang Okjeong, Living in Love』 -

Kim, Ga Hyun · Chun, Jae Hoon · Ha, Ji Soo<sup>+</sup>

Combined Masters's &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sup>+</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tures of fusion historical dramas aired after 2000 and the changes of the characters' costumes, by means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stumes worn in the dramas covering one identical character, Jang Okjeong., one of King Sukjong's concubines, well known as a femme fatale in the Korean history, and one of the most frequently reinterpreted characters among historical dramas aired in Korea: in two films and seven dramas. Among them, three works released after 2000, KBS 『Jangheebin』(2002), MBC 『Dongyi』(2010), and SBS 『Jang Okjeong, living in love』(2013), were chosen for this study. In order to find out the features and differences, the three dramas were viewed and captured, and then the captured scene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bove all, costumes of fusion historical dramas after 2010 were much different from those in the early 2000s. Also, as the character Jang Okjeong undergoes diverse changes in social status, and in her characteristic and situation as well, 『Dongyi』 and 『Jang Okjeong, living in love』 reveal a tendency to show these changes through the designs of their costumes. The term of "fusion" shows an attempt for diversify and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costumes of historical dramas. Controversies in the historical research would be inevitable, but they have great significances in that they add modern aesthetics of viewers to the historical works, at the same time, in that they help viewers understand the traits of the characters and their situations through their costumes.

Keyword : fusion historical dramas, costumes of historical dramas, Jangheebin, Dongyi, Jang Okjeong\_Living in Love

